

총장로 상인들 적극적 참여·관심 '뜨거운 열기'

'총장상권 정체성 찾기' 좌담회
구역별 상인회간 유기적 협조
"ACC 전시·공연 연계 할인율"
청년 상인 콜라보 활성화 모색

광주 총장로 상인회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 지난 15일 '총장상권 활성화 좌담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쏟아지면서 향후 정책 모색에 큰 도움을 주는 한편 상인회별 결속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좌담회는 주승일 사단법인 총장상인회장, 정일성 총장로 1·2·3가상인회장, 박종인 총금지하상가 상인회장, 최윤자 금남지하상가 1공구 상인회장, 박미란 금남지하상가 2공구 상인회장, 전병원 총장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기초발제와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좌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기초발제를 맡은 임창욱 전 호남대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총장로로 모이던 시대를 벗어나 염주, 상무, 첨단 등 새로운 상권이 생겨나고 금융기관 등이 이전하면서 구도심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며 "총장로도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컬 크리에이터가 모여 소통하며 브랜드를 만드는 '로컬 브랜딩'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좌담회 첫 패널로 나선 김정록 유통경영연구원은 호남 최대 상권인 총장로 구역별 상인회간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김정록 원장은 "조직마다 각자 개성들로 인해 명확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조가 어려운 구조다. 각 상인회별로 역할과 담당을 정해야 하고 주변 기관과 연계해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장로 인근 상권과 연계방안 모색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총장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난 15일 광주 동구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열린 총장로 정체성 찾기 좌담회에서 임창욱 전 호남대 교수가 '총장로 정체성 찾기, 무엇으로 특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ACC)에서 전시나 공연 티켓을 소지한 사람들이 총장로에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총장로 3가 입점을 추진중인 ㈜시너지타워에서는 총장로 상가별 세부전략을 내놨다.

심수홍 ㈜시너지타워 마케팅 총괄책임자는 "최근 동구청의 의뢰로 총장로에서 인공지능을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2000년대 초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총장로의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쇠락의 원인도 분석했다. 심 책임자는 "과거 총장로에 대리점, 패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F&B(Food&Beverage·식음료)만 남아있는 구조다"면서 "동명동 등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자생상권이 형성되면서"고 설명했다.

총장로 1·2·3가와 4·5가의 특색별 활성화 전략도 내놨다.

그는 "1·2·3가는 옛날 건물을 살려 관광 자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산업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4·5가는 서울의 성수동, 연남동 그리고 동명동의 모습들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상권에 2030 청년 상인과 콜라보를 통해 활성화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신규 조화가 잘 이뤄져야 총장로의 상권도 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북부센터장은 "총장로 상권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살아야 상권도 살아난다"는 상권활성화 해법을 제시했다. 문 센터장은 "정부 정책은 개별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과 상인회와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무수히 많은 정책이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해당 정보의 확산과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상인회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원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특화 거리를 지정해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접근성 제고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양 근산상권활성화재단 센터장은 전국 성공사례를 통해 총장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센터장은 "전국에 상권 활성화 사업 39개가 추진됐는데, 이중에서도 상인회가 많은 곳들이 가장 많은 실패를 맛봤다"면서 "전주 남부시장은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몇 백 년이 넘는 상권들이 그대로 있으면 젊은 청년들은 그곳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매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즐길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남부시장은 전통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청년몰과 야시장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인회마다 산적한 문제가 많아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예산은 한정적이다"면서 "각자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정작 주요 사업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상인회간 이기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 이사는 "총장로 르네상스 사업은 2026년 종료된다. 이후 지원 유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5년 지원책은 한시적이다. 결국 사업 설계를 할 때부터 재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결국 울스톱 될 수밖에 없다. 총장로 뿐 아니라 서구 양동시장, 광산구 송정시장 등 3곳 모두 그렇다"고 밝혔다.

정성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무안-도쿄 진에어(JIN)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